



세월호 희생자에 묵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세월호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유족 측의 제안으로 유족대표와 함께 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 목소리 현장서 듣겠다”

김무성 대표 ‘민생행보’

세월호 정국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야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대표는 27일 과천시 문원동 주민센터를 방문, ‘복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민생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대표는 전날에는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부산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에도 다시 부산을 방문해 지역구인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대 ‘르네상스 게이트’ 준공식에 참석하고 수해 복구 상황을 추가 점검한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협상 전권을 갖고 유족들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국회를 비우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김 대표가 외부로 발걸음을 넓히는 이유에는 유족과 대화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으며 민생행보로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원내 지도부에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고려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급 추천권 양보 가능성을 일찌감치 거론할 정도로 대야협상에 유연한 그의 만큼 야권중진과 여전히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사실상 끊어진 야당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오지만, 드러내고 나설 때는 아니라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린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현장을 찾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어떻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 문제에 대해서도 “생활고 때문에 숨지며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송파 세도녀 사건을 우리는 잊고 있다”며 “국회 파행으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도 거듭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호남의원 9명 “장외투쟁 반대” 집단 반발

### ‘세월호 해법’ 원내투쟁 주장

### 내년 1월 전대 지도부 선출 앞두고

### 친노 강경파에 반감 작용 관측도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장의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에 맞서 호남 정치권을 주축으로 한 당내 중도·온건파가 ‘원내 투쟁’을 주장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호남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5명은 ‘국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장외투쟁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재야 시민단체와 새정치연합의 역할과 선택이 동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어야 하며 이는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장의 투쟁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15명 국회의원은 ▲김동철 ▲김성곤 ▲김영환 ▲민홍철 ▲박주선 ▲백근기 ▲변재일 ▲안규백 ▲유성업 ▲이개호 ▲이찬열 ▲장병완 ▲주승용 ▲조경태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다.

주목할 점은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9명(광주·전남 7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 국회의원들이 주축을 이뤄 지도부의 방침에 집단적으로 반발할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들은 27일 오후 회동을 갖고 장외투쟁 불참을 결의한 것은 물론 매일 모임을 갖고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세력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 친노(친 노무현) 강경파가 당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친노 진영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을 주축으로 한 중도·온건파의 세력 확산이 차기 전당대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불사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온건파의 원내투쟁 주장은 전형적인 적전 분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의 장외 투쟁은 이를 만에 동력을 점차 잃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는 전체 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당내 강경파의 불편한 심기도 표출됐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빨대 의원님들, 조중동에서 잘 빨아 주세요.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도 짹짹 빨아주세요”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야당에서 모처럼 터져 나온 양심의 소리를 환영한다”며 “양심의 목소리가 비정상적 국회를 정상적 국회로 만드는 동력으로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외투쟁 반대 서명을 주도한 황주홍 의원은 “장외투쟁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길이며 원내에서도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당의 발전과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총정에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치 양보없는 여야, 제 갈길 간다

### 野, 이틀째 광화문·국회 ‘서틀투쟁’...與, 유가족 대표 직접 만나고 야당 압박

여야는 27일에도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며 제 갈 길을 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틀째 장외투쟁에 나서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어·야·유가족 3자 협의체’ 수용을 새누리당에 압박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민생법안 분리처리론’으로 공세를 퍼는 데 대해 “세월호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이라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

정의회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26개 중 완료된 것은 단 3건”이라며 “(대통령이)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야당을 비판하는데, 대통령은 뭘 했냐”고 말했다.

당 중진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조시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다. 유족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의원들도 국회 안팎에서 농성을 벌이며 대

여투쟁을 이어갔다.

국회 정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이 전날 ‘베이스 캠프’인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한 데 이어 오전에는 의원 약 60명이 예결위장에 집결한 뒤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피켓팅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장에 재집결해 원내지도부와 유가족 대표단 면담에 대해 보고받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법률 특감을 들었다. 이날 예결위장은 기재위와 미방위 위원들이 철야로 지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도 사실상 의사일정을 거

부하는 야당에 대해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월호법 못지않게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또한 중요하다”면서 “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서민과 경제 고통을 겪고 외면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생경제를 멈추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들의 이번 장외투쟁은 의회주의의 포기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야당 지도부는 국회를 돌아와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함께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과 직접 협상에 나서며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묘수 찾기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의당 정책위원장 조승수

### 대변인엔 김종민씨 임명

정의당은 27일 신임 정책위원장에 조승수 전 의원을 임명했다.

조 정책위원장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정치권에 입문, 울산 북구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진보신당 대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정의당은 신임 대변인으로 김종민 교육연수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위원장, 정의당 6.4 지방선거 선대위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제까지 대변인을 겸직했던 이정미 부대표는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부대표직만 맡기로 했다.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8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골도리벨 장작금 소화기 500개와 2,400만원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이장 안두경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1,477만원에 드리는 특가이벤트!!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 신청 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 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유지고객  
● 응모연고부조전: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 1등 50인치 벽걸이TV 3명
- 2등 드럼세탁기 3명
- 3등 제습기 9명
- 4등 쿼우압력밥솥 12명
- 5등 자전거 12명
-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 8등 아자상 1200명

※모든 금사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울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양림지점 652-9203 (기독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7)	광주교육대학교(10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9. 5.(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9. 6.(토) 09:10 (중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4. 9. 1.(월) 14:10 (초급반) ·월. 목 야간반: 2014. 9. 1.(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9:10 (고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